

편가르기·자리 나눠먹기 없앤다더니...

오늘 광주시의장 민주 후보 선출…지역위원장 개입설 등 구태 여전

민주당이 광주시의회 의장 후보를 토론회와 투표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출하기로 했지만, 일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편 가르기’가 재연되고, 일부 지역위원장들의 개입설이 흘러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30일 오후 2시 상무지구 CMB 컨벤션홀에서 제6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민주당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장 후보로 등록한 손재홍·조학관·윤봉근·나종현 후보(추첨 기준 순) 등 4명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한 뒤 의사원 당선인 투표를 통해 의장 후보자로 최종 선출하게 된다.

이날 토론회는 지금까지 광주시의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했던 ‘자리 나눠먹기’ 등의 폐해를 없애고 의장 후

보들의 정견발표와 토론회, 질의 응답 등을 통해 능력있고 검증된 후보자를 의장으로 선출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토론회가 열리기도 전에 ‘편 가르기’ 등의 세 규합이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시의회 의장 선거를 놓고 벌어졌던 구태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애초 ‘의회 개혁’을 앞세운 일부 초선 의원들은 밀실합으로 일lexport된 원구성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몇 차례 모임을 갖고 ‘의기투합’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각각에서는 이마저도 특정 지역위원장의 ‘사전 정지작업’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

내고 있으며, 일부 초선의원들이 특별 후보를 의장으로 옹립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설도 퍼져나가고 있다.

여기에 모 후보는 현재 7~8표를 확보한 상태에서 2차 결선투표로 가지 않기 위해 막바지 표 확보에 나섰다는 얘기가 돌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의장선거를 지원할 경우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변형된 자리 나눠먹기’도 있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최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광주시의회 의장 선거와 상임위원장 선거를 분리하고 ‘밀실 나눠먹기’’ 관행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작짓기’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 후보는 “공정한 의장선거를 위해 내부 결선 규정까지 정하고 토론회를 하기로 한 상황에서 갖가지 억측들이 나돌고 있다”며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세력이 어떤 의도를 갖는다면 앞으로 원구성과 의회 운영에 상당한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원 당선자 중 유일한 민노당 소속인 강은미 당선자와 비 민주당 교섭단체 구성작업과 함께 의장 선거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제6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노당 시의원 당선자와 구의원 당선자들은 30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시의회·구의회 의장선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아이폰도 가격 관리”

공정위 ‘30대품목’ 공개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과제인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가격동향을 예의주시해 국내외 가격차를 공개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이 있으면 시장과 인하율 유도할 ‘30대 품목’의 명단이 29일 공개됐다.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산업집중도가 높거나 국내외 가격 차가 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품목에 대해선 시장구조 및 경쟁환경을 상시로 감시, 부당행위가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을 통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공정위 등 정부 당국이 마련한 ‘가격감시 조사대상 품목 선정기준 및 품목’ 현황에 따르면 30대 품목은 정부가 2008년부터 조사해온 11개 품목과 함께 정부가 올해 들어 새롭게 선정한 19개 품목이 포함됐다.

신규로 포함된 19개 품목은 업종별로 보면 ▲디지털 기기(5개)는 수입 게임기, 디지털 카메라, 액정표시장치(LCD), 발광 다이오드(LED) TV, 아이폰, 넷북 ▲식품(5개)은 생수, 아이스크림, 치즈, 프라이드 치킨, 초콜릿 ▲보건용품(4개)은 타이레놀, 일회용 소프트렌즈, 디지털 혈압계, 아토피 크림 ▲생활용품(5개)은 아동복, 유모차, 에센스, 샴푸, 베이비로션이다. /연합뉴스

장만채號 “교육장 공모제 도입”

무안·목포교육장 첫 사례 될 듯…인사·예산 ‘주민참여제’ 확대

도교육감 취임준비와 ‘40개 실천과제’ 발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당선자가 다음달 1일 취임과 동시에 교육장 공모·인사·예산 편성 등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제16대 전남도교육감 취임준비 위원회는 29일 도교육청에서 40개 주요 과제 실천내용을 담은 전남 교육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준비위원회는 교육목표를 ‘소통과 협력으로 신뢰받은 전남교육’으로 정하고 학교중심 학교운영 등 5대 시책, 친환경 무상급식 5대 역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준비위원회는 교육목표를 ‘소통과 협력으로 신뢰받은 전남교육’으로 정하고 학교중심 학교운영 등 5대 시책, 친환경 무상급식 5대 역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과제 수립, 실천을 위한 핵심 자문그룹으로 서기관, 장학관 등 12명 암팎으로 전남교육발전 기획단을 구성하고 기존 설치된 교육발전협의회를 교육미래위원회로 바꿔 운영하기로 했다.

예산수립·편성 등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

사를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도민참여인사위원회’도 구성된다.

전남도내 22개 시·군 교육장 임명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추천교육장 공모제 도입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자치활동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이 1964년 전남도 교육위원회로 출발한 이후 교육장 공모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 대상은 8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목포와 무안교육장 등 2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학생체벌 금지, 두발자유화, 보총자율학습 선택권 부여 등 학생인권 조례 제정은 창성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본청 및 지역교육청 직제개편안은 학교현장지원 중심 및 장학기능 활성화가 미흡하다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사실상 9월 시행은 어렵게 됐다.

이와 함께 교원평가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찬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장 먼저 목포와 순천 등 일부 도시지역 사립고가 운

영중인 우열반 편성은 고교 평준화 정신 훼손, 비교적 교육,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교원평가는 교과부 평가방식을 반대하며 학부모·학생 만족도가 우선해야 하고 일제고사도 획기적 고사는 암기위주 문제풀이가 기술만 양성한 만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준비위원회는 보완사항으로 표집고사, 평가결과·공개금지, 문제 응용·이용, 학력미달 학생 지원책 선결 등을 주장했다.

특목고 추가 설치와 자율형 사립고 설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고교시 수업도 반대했다.

반면 학생체벌 금지, 두발자유화, 보총자율학습 선택권 부여 등 학생인권 조례 제정은 창성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본청 및 지역교육청 직제개편안은 학교현장지원 중심 및 장학기능 활성화가 미흡하다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사실상 9월 시행은 어렵게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파나마 FTA 조속 체결”

양국 정상 공동선언문 채택

경제·통상 관계도 강화키로

캐나다 토론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파나마를 공식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오후(현지시간) 리카르도 마르피넬리 베로칼 파나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파나마시티내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13개항으로 구성된 ‘대한민국과 파나마공화국의 우호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파나마의 광물자원 개발, 인프라 건설 분야 등에서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마르피넬리 대통령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기업들은 현재 ‘꼬브레 파나마 동광 프로젝트’와 파나마 운하청이 발주할 예정인 ‘미라플로레스’ 디젤 발전소 증설 공사에 관심을 갖고 있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두 정상은 파나마와 FTA를 조속 체결하기로 했으며 다른 중미국가들과도 FTA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각국의 의향을 확인해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교역·투자 확대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가까운 시일내 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연수생 초청사업 및 지식공유사업을 통해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파나마운하 갑문 시찰

파나마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리카르도 마르피넬리(오른쪽) 파나마 대통령과 함께 파나마운하 미라플로레스 갑문을 방문해 통제탑에서 선박 통과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마르피넬리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와 북한의 무력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한국정부의 신중

하고 절제된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46명의 희생자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

광주 서창천·보성 칠동천 등 지방하천 15곳

명품 랜드마크로 재탄생

국토부 2018년까지 18조 투입

광주 서구의 서창천과 보성군의 칠동천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하천’으로 거듭난다.

국토부는 올해 온·하천 정비사업을 4대 강 사업과 연계, 친수 환경과 생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춘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을 재

개를 우선 선정해 치수는 물론 지역의 역사와 문화까지 접목한 ‘고향의 강’ 사업에도 나서고 있다.

고향의 강 사업은 170개 하천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올해 15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실시설계 중이다. 광주에서는 서구의 서창천, 전남에서는 보성군의 칠동천이 고향의 강 사업에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를 허친의 퇴적토를 파내고 둑을 만들거나 보강해 흥수방어 능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콘크리트 시설물과 둑의 주차장을 친환경 시설과 습지로 바꾸는 등 녹색공간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총행기자 redplane@

대인동삼일부동산

FAX 02-772-1772, 휴 010-882-2532

(광주은행 신본점앞,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빼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

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

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

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

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

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광주광역시

광주 서구 대인동 3번지

인근에 위치한 대인동 3번지

</